

사설

한국불교 전산화

조계종의 종무행정 전산화작업이 1차 결실을 맺었다. 작년 1월 총무원에 근거리통신망(LAN)을 구축하고, 종무행정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온지 1년 9개월만의 일이다. 이번 1차 작업은 종단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분야를 전산화한 것이다. 이로써 종단의 수출입과 각 사찰의 예산결산은 물론, 제반 문서를 교환하고 승적을 관리하는 등, 종합행정업무가 획기적으로 편리해질 것이다.

조계종은 이같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2단계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그것은 중앙의 총무원과 각 본말사를 연결하는 원거리 통신망(WAN)의 확보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한국불교는 21세기 정보화의 성공사례로 떠오를 것이다. 그로부터 얻는 이익은 헤아릴 수 없다. 우선 불교의 현황을 시시각각 파악할 수 있다. 불교는 누가 뭐래도 철학이보다 종교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정보화 사업은 복잡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를 필요로 한다. 불교정보화의 구축 또한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고 기획해야 한다. 조계종의 정보화 마스터플랜은 종무행정 전산화 넘어, 불교본래의 목적에 유용한 도구로써 활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불교계는 다양한 방면에서 정보화와 전산화를 구현해나가고 있다. 한창 진행중인 팔만대장경의 전산화와 현대불교신문의 정보센터 '부다피야'도 그 일환이다. 조계종은 이들 개개의 작업을 지원 조정하고, 그 성과를 불교계의 통합 전산망으로 서비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 이는 거창한 사업이다. 종단의 비전과 의지 못지않게 사업을 위한 예산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불교계의 정보공유화는 불법교계의 지원과 후원이 뒤따라야만 결실을 기약할 수 있다. 사부대중의 관심과 애정어린 동참을 촉구한다.

외에 불교의 교리를 홍보하고 잠재적 신도를 인도하는 이관(理判)의 기능까지 병행되어야 한다.

이들처럼, 불교의 유물과 사적을 그 래픽으로 알려주고, 교리를 독경승의 생생한 육성으로 들려주며, 위대한 고승들의 전기와 법문을 멀티미디어에 담아 뿌려주는 새로운 포교를 기획해야 한다.

불교는 영상세대와 영상매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불교가 갖고 있는 신화적 제재, 가령 팔상목이나 부처님 일대기, 그리고 팔연이나 천태의 세계관이나 유마나 지장의 보살세계는 무궁무진한 상상력의 보고이다. 한국불교는 너무 근엄해서 종관의 메마른 교설과 선의 직절성만 강조할 뿐, 불교유산의 거대한 향고를 잘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다. 불교는 누가 뭐래도 철학이보다 종교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정보화 사업은 복잡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를 필요로 한다. 불교정보화의 구축 또한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고 기획해야 한다. 조계종의 정보화 마스터플랜은 종무행정 전산화 넘어, 불교본래의 목적에 유용한 도구로써 활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불교계는 다양한 방면에서 정보화와 전산화를 구현해나가고 있다. 한창 진행중인 팔만대장경의 전산화와 현대불교신문의 정보센터 '부다피야'도 그 일환이다. 조계종은 이들 개개의 작업을 지원 조정하고, 그 성과를 불교계의 통합 전산망으로 서비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 이는 거창한 사업이다. 종단의 비전과 의지 못지않게 사업을 위한 예산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불교계의 정보공유화는 불법교계의 지원과 후원이 뒤따라야만 결실을 기약할 수 있다. 사부대중의 관심과 애정어린 동참을 촉구한다.

종무행정 전산화 기틀 마련

조계종 99년부터 재무회계·신도 관리등 가능

조계종이 추진해 온 종무행정 전산 정보화 작업의 기초프로그램이 완성됐다.

총무원 기획실은 6일 종단 정보화 추진 1차완료 보고회를 갖고 종무전산화 프로그램의 운영 시범을 보였다. 코코회에서 기획실장 지홍스님은 "이 프로그램이 완성됨으로 조계종 행정 전반에 전산 정보화가 가능케 됐으며 이를 통해 행정의 신속성과 자료의 체계적 축적 및 업무 표준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이 이현데이터시스템에 의해, 작년부터 개발해 온 전산화 프로그램은 총무원의 사찰관리 승적관리 재무회계관리 등 10여 업무와 교육원의 행사관리 등 4개 업무, 포교원의 각종 포교기관 관리와 신도관리, 중앙총회의 의원과 선거관리등으로 운영된다. 총무원은 각 기관-업무간 상호 열람과 공동 관

리가 가능한 이 프로그램을 전국교구본사가 함께 운영토록해 종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총무원은 금년내로 중앙총무기관의 제반 행정을 전산화, 자료를 집합·공유·분산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99년까지 데이터 축적을 통한 각종 종무행정의 통계화 작업을 가능케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총무기관의 업무 전산화를 위

한 프로그램도 개발, 고속디지털통신망(ISDN)을 통한 업무공조 시스템도 9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같은 체제의 완비를 통한 전국 사찰의 종무행정 전산정보화는 2001년쯤 가능할 것이라며 조계종의 전망이다.

조계종은 정보화 작업의 기초 시설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각종 업무와 자료를 입력하는등 후속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임연태 기자)

청소년상담실 개설 동국대, 전화·PC통신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 학생생활연구소는 동국 참사랑봉사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일 청소년전화상담실을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24시간 PC통신과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는 청소년전화상담실은 중고등학생 및 근로청소년, 대학생들의 종교, 학업문제, 정서 및 성격문제, 진로문제, 교우 및 이성관계 등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특히 고진호 학생생활연구소장, 객준규 한국대학생상담학회장 등 상담전문가들이 참여해 청소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및 학부모 상담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비구-사미 승복 '다르게'

조계종교육위, 총회상정기로 기본교육 의무화 '확정'

앞으로 비구(니)계를 받지 않은 사미(니)들에게는 승려증 대신 '수학증'이 발급된다. 또 사미(니)들의 모든 법복에는 동정과 소매끝에 법색띠를 둘러 비구(니)와 구분짓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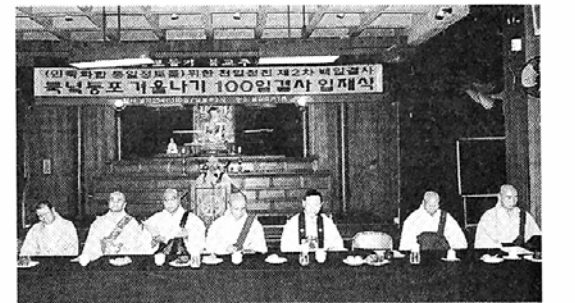
8일 총무원 4층에서 발족식을 가진 기초교육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무관스님)는 이어 열린 회의에서 사미(니)의제 및 승려 발급증 개선안을 이같이 확정하고, 오는 11월 열리는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원회는

비구(니)계를 받기 전에 승려증이 발급되는 현행제도는 행자들의 중단기본교육과정 이수율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승려자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승려증 대신 수학증을 발급함으로써 최소 5년 과정의 기초·기본교육과정 이수율 의무화하기로 했다.

추진위원회는 또 두루마기, 장삼, 적삼 등 사미(니)의 법복 동정과 소매끝 등에 법색(가사색)을 둘러 비구(니)와 구분기로 했다. 비구(니)와 사미(니)

가 구분되지 않고서는 승가의 위의를 바로잡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날 호칭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기초개혁추진위원회는 보성스님(원로의원) 등 9명의 자문위원과 무관스님(계단위원)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무관스님, 부위원장에 종림스님(총회 총무부과위원), 간사에 밀원스님(교육원 불학원 교수장)이 각각 선출됐다.



7일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열린 북녘동포기 불교추진위 2차 1박일 결사에 조계종 태고종 진각종 등의 종단대표들이 참석, '북녘동포 겨울나기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북동포 겨울옷보내기운동 '확산'

식량·의약품과 병행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동포들을 위한 교계의 움직임이 모금운동에 이어 겨울나기를 위한 '옷 보내기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정토회관에서 북한동포 '사랑의 옷 보내기' 설명회를 개최하고 31일까지 겨울용품 1차 접수를 마감, 부산항을 통해 북한 나진-선봉지역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02)3672-5373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지선스님)와 우리 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집행위원장 법륜스님)는 북녘동포들이 식량난에 따른 영양결핍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겨울옷 보내기 사업을 각각 추진키로 했다.

불교추진위원회는 7일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민족화합 통일정토를 위한 천일정진 제2차 1박일 결사 '북녘동포 겨울나기 입재식'을 갖고 식량지원과 의약품 보내기와 함께 겨울나기 캠페인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02)733-2557

이에앞서 불교운동본부는 6일

산철용맹정진 회향 문경 대승사, 남자 39명

경북문경 사불산 대승사(주지탄공)는 10일 산철3·7일 용맹정진을 회향했다. 39명의 남자들은 9월 20일 월산스님을 선덕(禪德)으로 모시고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산철결재는 여름·겨울 안겨 이후에도 화두를 놓지 않고 계속 수행정진하는 것으로 대승사는 지난해 여름안겨 이후부터 세번째 산철 용맹정진을 해오고 있다. 대승사는 지난 9월 입적한 불국사조실 월산스님이 94년 개설한 선원이다.

종교편향 억제·신앙자유 보장

국방부 '군종업무 훈령' 새 제정 의미

국방부가 9일 발표한 '군종업무 훈령'은 군내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장하고 종교간의 갈등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각급 지휘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의 종교선택을 보장토록 하고, 각 종교간 갈등해소를 위해 지휘관은 중립적인 종교관을 견지하고 개종이나 특정종교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종교를 비방, 폄하, 침해하는 선교 및 포교행위 금지도 명시했다.

또 군 종교시설 건축시 모금행위를 금지하고 대신 종교별 후원회 등 공식적인 단

일창구를 통한 자발적인 시설 건립만을 선별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성구 성물은 인가된 종교시설에만 비치해야 한다. 군내 종교시설의 경쟁적인 건립을 막아 종교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훈령은 또 국방부 군종실장이 '종단협력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군내에서 종교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각 종교대표자가 함께 참여해 사태확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교단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발생한 육군특수전학교 해불사건과

관련, 김동진 국방장관은 불교계에 공식사과하고 "유사사건 재발방지와 군종 발전을 위해 현행 법규를 제·개정, 보완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훈령 제정과 관련, 한 군법사는 "군내 종교정책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교계에서는 군내 종교인구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양질의 군법사 양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군종업무 훈령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보장과 특정종교에 대한 차별이나 편향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군의 입장과 취지를 대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만평 박구원

대학서도 위빠사나 교육

737-8881

96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구입신청: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737-8881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연꽃 한송이의 향기가 퍼져 온 세상을 향기롭게 하듯, 바른 수행자의 존재는 이세상의 희망입니다.

大韓佛敎曹溪宗

宗 正 老 天 月 下
總 務 院 長 太 空 月 珠